

미등기 묘지 찾아주기… 행정시 엇갈린 행보

제주시, 적극행정 일환 10월부터 시범사업 추진 호응
서귀포시 “개인정보법 위반 우려·적극행정 범주 넘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미등기 사정(査定) 묘지’에 대한 후손 찾아주기’를 놓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제주시가 적극행정 시책으로 지난 10월부터 미등기 사정묘지 후손 찾아주기 시범사업에 나서 호응을 얻는 반면, 서귀포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 등 적극행정의 범주에서 벗어난다며 추진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서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미등기 사정묘지 후손 찾아주기 시범사업 한 달간 210건이 접수될만큼 호응을 얻고 있다.

미등기 사정묘지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토지조사때 당시 소유자

를 지정하고 지번을 부여했지만 미등기 상태의 묘지로 제주시 3만2090필지, 서귀포시 1만8199필지에 이른다. 서귀포시의 미등기 사정묘지 면적은 266만7400㎡로 마라도 면적(30만㎡)의 8.8배에 이른다.

문제는 이들 미등기 사정묘지 대부분이 타인 소유의 주택가나 농경지 안에 있어 토지주의 건축행위나 농업활동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서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다. 특히 토지대장에는 사정묘지로 올라있지만 상속인들의 관심 부족과 장묘문화의 변화 흐름을 타고 이장된 후 분분없이 묘지터로만 방치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의

제적등본 열람 등이 금지돼 미등기 묘지의 소유주나 상속인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토지주들은 1913년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묘지터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기 위해 국가상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벌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도내 미등기 묘지 국가소송은 2017년 28건, 2018년 82건, 2019년 73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주시가 벌이는 미등기 묘지 후손찾아주기 사업은 토지대장에 ‘사정’으로 등록된 미등기 묘지의 인접토지주가 후손 찾아주기를 신청하면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해 미등기 묘지의 상속인을 찾아낸 후 상속인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신청인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미등기 묘지

상속인 확인을 위해 제적등본 등을 무단 열람하는 것은 적극행정의 범주를 벗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도내 미등기 묘지 토지주 중 서귀포시민만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미등기 묘지 후손 찾아주기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것인데 공무원이 제적등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적극행정의 범주 밖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특히 20년 이상 점유기간을 가진 토지주의 점유취득시효 소송과 묘지주가 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대립 등 개인간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행정이 아닌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쪽파 수확 한창 입동(立冬)을 하루 앞둔 7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쪽파 수확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이상국기자

올해 제주 최고의 감귤은…
위미리 양경준 농가 ‘대상’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귀포시 남원을 감귤이 ‘최고의 감귤’로 선정됐다.

제주도농업기술원과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는 ‘2019 최고의 감귤’을 심사한 결과 남원을 위미리 양경준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에도 한남리에서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2년 연속이다.

양경준 농가는 토양피복 재배 등 지속적인 과원 관리를 통해 당도 13브릭스 이상의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면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분야별 수상자는 ▷대상 양경준(남원) ▶극조생 ▷금상 김창석(효돈순환로) ▷은상 이순자(한경)·지상문(안덕) ▷동상 안두찬(표선)·공명길(대정) ▶조생 일반노지 ▷금상 고예순(하호) ▷은상 강정숙(토평)·김양순(학수남로) ▷동상 부성운(애월)·김창백(대정) ▶조생 토양피복 ▷금상 문성희(안덕) ▷은상 현승원(대포북계로)·고상철(대정) ▷동상 김재성(남원)·오종구(표선) ▶조생 친환경 ▷금상 오승훈(남원) ▷은상 이성호(신효로)·유종석(토평남로) ▷동상 이명우(남원)·진성관(홍중로) 등 21농가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원도심에 ‘도시재생 상생마당’ 조성

옛 제주감협 건물 리모델링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과 접목한 창업 인큐베이팅 거점 역할을 하게 될 ‘도시재생 상생마당’ 조성이 완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일도1동에 위치한 옛 제주감협 건물을 매입·리모델링해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상생마당’을 조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시 원도심(모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른 마



제주시 일도1동 옛 제주감협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도시재생 상생마당. 사진=제주도 제공

중물 사업으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홍보와 주민 교육, 사업 참여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내년 1월 본격 운영되는 이 공간에는 도시재생 홍보관, 도심윌레 라

“교통사고 빈번… 도시계획도로 설계변경을”

상에 일주서로 토지 포함
교회측, 市에 진정서 제출

서귀포시가 최근 상예동 일주서로 도시계획도로 계획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에 나선 가운데, 토지 수용 대상지 중 한 곳인 상예동 소재 모 교회 측이 토지 수용 계획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도시계획도로 설계 변경 요청에 나섰다.

지난 6일 상예동 소재 모 교회 교인 일동은 상예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 교회 부지를 수용하지 않고, 교회 맞은편에 소재한 하천부지와 유흥지를 활용해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서귀포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상예동에서 예레동 교차로로 향하는 일주서로 구간은 내리막길이다 급커브 구간도 두 곳에 달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

생하는 곳”이라며 “교회 부지를 수용하지 않고 교회 맞은편에 소재한 하천부지와 유흥지 등을 활용해 안전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시재생 상생마당’은 최희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과 접목한 창업 인큐베이팅 거점으로 조성돼 청소년 아카데미, 원도심 연계 진로직업 체험교육, 청소년 적성기술 및 미래대응 교육이 이뤄진다.

또 원도심에 대한 기억을 기술·채록해 녹음한 전시 공간과 재생할 수 있는 영상 공간 마련으로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보급하는 공간으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전초기지로 키워간다는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생하는 곳”이라며 “교회 부지를 수용하지 않고 교회 맞은편에 소재한 하천부지와 유흥지 등을 활용해 안전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하천부지와 유흥지 활용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설계팀과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상예동 일주서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2025년까지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지속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떠밀려오는 해양쓰레기… 수거량 급증

10월까지 1931t… 작년의 갑절

서귀포시 지역 해안에 떠밀려오는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1931t으로, 작년 연간 수거량(1082t)의 갑절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올해 제주바다지킴이를 작년(57명)보다 많은 65명을 채용해 찾은 집중호우와 잇따라 발생한 태풍으로 대량으로 떠밀려온 해양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한데 따른 영향이다.

시는 해양쓰레기가 지속적으로 증

가함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제주바다지킴이를 읍면동에 배치해 해안에 밀려드는 쓰레기를 상시 수거하고, 해양투기 방지 등 청정바다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2017년에는 44명을 투입해 825t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시는 제주바다 지킴이 사업이 이달 20일 만료되는데, 그 이후에도 추가 인력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해안정화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최문보 해양수산과장은 “제주바다 지킴이를 해안면에 계속 배치해 밀려오는 쓰레기를 상시 수거, 주민과 관광객들이 쾌적한 해안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지역사회단체 잇단 수상소식

최근 서귀포시 지역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중앙정부 포상 및 표창을 받았다

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바르게살기운동전국회원대회에서 바르게살기운동서귀포시협의회 한정연 사무과장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 서귀포시새마을지

도자협의회 변봉남 회장이 새마을훈장(노력장), 서귀포시에래동새마을부녀회 나성순 회장이 국무총리 표창, 새마을지도자서귀포시송산동협의회 양창환 회장과 서귀포시 성산읍새마을부녀회 김복자 회장, 새마을문고중앙회서귀포시중문동분회 이창식 회장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 이날 ‘지방자치의 날 기념’으로 서귀포시 이장연합회 고행곤 회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태윤기자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잡초의 경감

높은 저장성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N2O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페르카*

강력한 라임효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주 염분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자옥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앵배추브로컬리 무 앵파배추

V패스(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제)

앵배추브로컬리 앵파배추
(500㎖당 500배 희석)

감 자

무 우

마 늘

• 소독 : 정식전 묘종을 적혀 파종(발근제는 필요없음)

• 1차 살포 : 파종후 10~15일 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10월경 찬바람이 불기전 살포

• 효과 : **뿌리혹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 1차 살포 :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10월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 **시들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

• 1차 살포 :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10월경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 **무청 바로 밑 검은띠 형성되는 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

• 소독 : 파종전 침지 또는 적시어 파종

• 1차 살포 : 멀칭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2월 말경 해빙기가 되면 살포

• 효과 : **잎지 썩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곰팡이감귤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